

연 중 제 32 주 일

기도서 P. 473 C해

1독(마카후 7,1-2, 9-14절)
2독(베살후 2,15-3,5절)
복음(루 가 20,27-38절)
(혹은 루가 20, 34-38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5098)

□독상□



법률과 사랑

조 성 호

빈벙상 부부는 동거할 의무가 서로에게 주어져 있다. 어느 일방이 동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소송을 제기하여 배우자에게 동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우자와 동거하라」고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이 판결에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집달리에 위임하여 배우자를 강제로 곁에 끌어들이지 않을 것인가? 구만법에 있어서도 이것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다.

부부사이에 사랑이 있다면 동거할 것을 요구한 법률은 재판없이 그 뜻하는 바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법률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친족법상의 문제에 속하지 않는 금전이나 거래상의 사건에 있어서도 우리는 흔히 법률의 힘의 유한성을 본다. 사실 법률을 내세워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결코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일이다. 이와 반대로 사랑, 신의, 성실함이 있다면 법률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경제해야 할 것은 세상사람들이 자칫하면 법률을 만들어 이것을 예행함으로써 사회의 안녕과 모든이의 복리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점이다. 부정수표가 횡행하면 「부정수표 단속법」이 나오고 공산당의 음모가 자행되면 「반공법」, 부동산투기가 성행하면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나온다. 물론 이것들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만으로 충족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착안하여 이것을 해결하고 제거하는데 보다 더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것을 법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다.

율법적 행동으로써는 아무도 주님앞에 의(義)로울 수 없으며 사람이 의롭다함은 율법적행위가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이다. 여기서 율법이란 말이 오늘날의 법률과는 그 뜻이 다소 다르겠지만 신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객이 전도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되는 작금의 변정모습을 볼 때 수천만의 법률조문보다는 한말의 밀의 신앙이 있다면 하고 생각해 본다. 개인이든 사회이든, 그 손실 그 불행의 원인은 「법률의 불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은 결코 만능하지 않다. 「법률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이다.

법률을 완성시키는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전인격을 움직이는 사랑, 전사회를 견지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지며 은총과 진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말은 오늘날 법률을 만들고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하다. 독생성자를 내려보내서 인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낸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사랑하던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전주교구 평협 회장)



어떤 날 아침에

아침 일찍 연구실로 나왔다. 청소를 하기 위해 창문을 열었다. 두세 잎의 단풍이 방안으로 날아 들어왔다.

어느덧 가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풍잎을 집어 들고 밖을 내다보았더니 담장이 잎들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잎사이에는 까만 열매들이 달려있었다. 그렇다. 잎은 계절이 오면 열매를 위해 떨어지는 법이다. 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 새 잎이 트고 봄을 기다렸던 싹들이 피어오른다.

나는 어제 내 방에서 몇 친구 교수들과 나누던 이야기를 회상했다. 모두가 학교를 떠나기 섭섭해 했다. 어느 사이에 원하지 않았던 정년이 찾아왔고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섭섭한 실정들을 토로하고 있었다.

어느과의 모교수와 같이 퇴직 뒤에도 몇 강의만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털어놓는 교수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 나는 값 귀한 교혼을 낙엽으로부터 배웠다. 잎은 열매를 위해 꼭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내가 더 좋은 강의를 하리라는 생각, 아직도 충분히 건강하다는 생각은 좋지 못하다. 후배들을 위해 깨끗이 양보하는 선배는 그것으로 사회적 결실을 맺는 법이다.

조물주는 역사를 사랑했기 때문에 후손을 남기도록 해주었고, 더 훌륭한 후배들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만이 머물러는 생각은 정당한 판단이 아니다.

나는 신이 역사를 사랑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늙어서 죽도록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발견하고 있다. 역사악을 고집하는 사람을 벌주지 않고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그 길이기 때문이다.

후배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길은 그들에게 내 자리를 양보하고 나는 내 일을 개척하는 일이다.

-연세대 김 형석 교수의 글에서-

숲 정 이 산책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우 리 의 태 도

지난 10월 18일 화요일 저녁 안동 동부동 성당에서 교구 사목국이 주최한 우리농민, 근로자, 양심수인을 위한 특별미사가 울려퍼졌습니다. ...중략...

생각도 못한 전국 교구 신부님들의 호응과 참언로 미사를 봉헌한 우리 신부들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가난한 농민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만 역시 생각지도 않은 무려 5명이 나 되는 신부들의 연행에 놀라움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넓은 지역을 사목구역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교구라는 것과 신부 부족으로 갖가지 어려움을 다 겪었고 또 겪고 있는 우리교구로서 실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신부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걱정하시는 문의 전화가 잇달아 오는 것과 직접 안동에까지 오셔서 걱정하고 있는 수십명의 신부님들을 보아서도 분명합니다. ...중략...

이에 우리 안동교구 신부님들은 결코 이러한 어려움과 걱정이 다른 본당의 문제로만 보아 넘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바로 각자 자신의 문제이며, 모든 본당의 문제로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료 사제를 잃게된 이 비통한 심정으로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몰아가 정상적으로 본당에서 일할 수는 없다고 느끼면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심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강도를 만나 반쯤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쳐간 사제와 레위지와 사람이 우리주 그리스도 눈에 얼마나 비정상적인 종교지도자로 보였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 사제와 레위지와 사람에게도 그들대로의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회당에서 여러분과 같은 하느님 백성들의 전례를 맡아 지도해야 할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행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쳐간 소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셨음을 알고있는 우리에게 연행된 우리 동료들에 대해 남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취할 태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포도밭에서 평생을 같이 일하겠다고 나선 우리 신부들은 기쁜 일만 아니라 모든 걱정과 고통까지도 같이 나누어야 하겠기에 교구장이신 주교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본당만 지키고 있는 것이 최선이 아니기에 연행되신 신부님들이 신자를 떠나 있는 슬픔과 고통까지도 같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주일까지도 본당을 비우지 않을 수 없다는 우리의 이 결의는 안동교구 목자이신 주교님께 또 하나의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이 결

의는 교형자매 여러분께도 고통과 걱정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결의는 한두 시간내에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며칠을 두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얻은 결론을 잘 아시는 주교님이시지만 고통스런 마음으로 본당과 공소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걱정하시면서 허락하지 않을 까를 꺼려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교형자매 여러분께 우리의 이같은 심정과 결의를 알려드리기로 하면서 주교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작금의 우리현실을 강론하는 신부들의 강론내용이 성당안에까지 들어온 기관월에 의해 기록되거나 녹음되는 상황은 분명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찌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의 성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유엔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모든 말없는 불의의 피해자들에게 나는 나의 입장과 탄원의 소리를 보낸다"고 역설하시면서, 말없는 불의의 피해자들이란 종교적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이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다가 폭력에 의하여 제거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정의평화위원회 회원장이신 로이 추기경의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느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강압적 이념을 무장으로 하는 어떠한 법에도 불복종내지는 항거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불의와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억압에 대한 도전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천명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교회의 가르침은 바로 주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묶인 이들에게 해방을 알려주며, 마음 괴로운 이들에게 기쁨을 전해주시는 주님의 사명 바로 그것이며, 불의에 관한 우리 신부들의 사명 역시 바로 이것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만민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당신을 체포하려 온 악도들에게 아무 말없이 자신을 내맡기셨습니다. 우리 신부님들이 연행되실 때도 바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십자가의 길을 주님처럼 우리도 져야 하겠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다시 부축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용기와 힘, 바로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억압하는 이들에게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서늘한 현실을 개탄하고, 교형자매 여러분에게는 비통한 우리의 심정과 비장한 각오를 보여드리며 더 큰 이해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친주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세에 영원히 아멘

1977. 10. 26

천주교 안동 교구 사제단

MCGREGOR

☆심성물산☆

맥그리거

전 주 특 약 점

고급화된 기성복(성인용, 아동용)

유 소 연 (울리안나)

☎ 4451 종년제과 분점양



알루미늄 백철 합금 통주물 제품입니다.
수압 2kg/cm, 두께 0.5~6cm 로써 안전함
취사와 난방 겸용하여 연료절약 50%임
시공과 사용이 간편하며 깨스위험 100%방지
만능 보조 급수 탱크가 특징입니다

한 일 연 탄 온 수 보 일 러

박 성 안 (소시모)

부안읍 서외리 2구 동양극장 앞 ☎ 1004 번



□ 연령 성월 □

축하할 죽음이여!

김 영 구 신 부

“나는 또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성령께서도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수고를 면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남아있기 때문이다”(요한복서14, 13).

이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은, 질로 볼건한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행중의 최대 불행, 흉사중의 최대의 흉사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견지에서 죽음에 길(吉)한 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은 공포의 왕입니다. 그리고 죽음이야말로 만사의 끝이라는 것입니다(히브리서9, 2).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히브리서2, 15).

그러나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불길한 일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질한 일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이 죽음이 무엇인가를 살필 때,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질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이 세상 사람과는 이 죽음에 관한 양자의 관념에 의해 판연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 있어서도 죽음은 물론 한없는 고통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여 물론 죽음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이것을 피하려는 것은 인간의 천연성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여 물론 스스로 택하여 죽으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명이 내릴 때, 그는 감사하여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고통의 궁극인 동시에, 또 참 자유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고통의 끝인 것입니다. 죄의 소굴인 육체가 끝날 때, 고통은 절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육체가 있으므로 오는 것입니다. 이세상의 의무라는 것은 모든 육체에 관한 의무입니다.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급양(給養)의 의무, 노역의 의무, 이것 모두가 육체로 인하여 오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고통이 따르는 부정 못할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때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용처럼 탄식하기도 합니다(욥 3, 20절 이하 참조).

인생이 배락이라고 하는 자는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입니다. 인생을 참되이 살려는 자치고 큰 고통을 느끼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 때 죽음은 인생의 끝이며 동시에 또는 고통의 종식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그것이야말로 결코 불길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최대의 해방입니다. 육의 노예는 그에 의해 비로소 자유의 천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당할대로 우리들 주 예수님의 제자인 자는 죽음을 불길한 일로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은 크리스찬에 있어서는 영광에 들어가는 길, 또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당할 때 울기는 울지만, 그러나 희망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대성통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죽음의 가치를 압니다. 그것은 자기를 성결케 하는 기회, 영생에 들어가는 길임을 압니다.

축하할 죽음이여! 감사하리로다. 죽음이여!

요심이 (223)

귀에 거슬리는
발언을하면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비위사실을
폭로하면
눈을 부라리니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요?

당신도
답답하군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손을 들때
당신도 손을 들면
되요. 알았오?

□ 개업 안내 □

빅타이, Y셔츠,
양말, 스킨도산매

한 바 다

박 종 철(야오킵)
이 윤 례(테레사)

전주시 중앙동
신세계 마파트 → 구라파 제과

삼가 아뢰옵니다

저희 아버지(李宗弘 요한)와
어머니(李今禮 막다메나)의
탈상 예절을 다음과 같이 갖습니다
○미사...11월8일(화) 오전11시 자택
풍납동 3가 12 (2-9724)
아들 永文(안드레아)
永熙(다두) 永洙(실베스텔)

난 방 시 설 은

한국 온수 온돌

이리 구시장 ☎ 4940
전주 최정식 ☎ 8342
군산 청파시장 ☎ 3032

◎양심을 찾자

카메라 대여, 학교 각종 사진 출장

중 앙 사 진 관

한 원 규(야고보)
이리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 현대 칼라 특약점 □

태 양 사

김 스테파노 (총범)

-특수 촬영 기술 무로로
-고급 카메라 대여, 수리전문
-회갑·결혼 야외 칼라사진출사
-각종 칼라 필립 판매
정읍 소방서 앞 ☎ 5404번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 광 사

(구 태 양 사)

유 영 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박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5116, 6114, 3547번

공
지
사
항

1. 예산심을 위한 지구별 확대회의(7~9일, 사제·사도회장·재경분과 위원장)
 2. 혼인문제 상담일(8일<화> 오전 10시-오후 5시, 교구청 응접실)
 3. 전주교구 교리교사를 위한 심포지움(19일<토> 오후 3시-20일<일> 오후 4시, 가톨릭센터, 참가비 800원)
 4. 제 2지구-군산·대야·함열·용안·화산-웅변대회(27일<일> 오후 2시...출정이 258호 참조)
 5.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7월<일> 오후 8시, 가톨릭센터)
 6. 전주교구 평형 정기 총회(12월 18일로 연기)
 - ※ 다음주일은 평신도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헌금 부탁드립니다
 - ※ 사람을 찾습니다...인척에서 살던 김정순(마리아, 38세)을 아는 분은 편지실로 연락바람-김영일(요셉)
 - ※ 은퇴하신 이철연(방지거)신부님덕에 지난 10월 28일 조그마한 화재가 있었습니다
- MBC TV안내 (부자 손선지와 순교자 소개)...13일<일>오전 8시 (재방송...19일<일>오후 4시)

(중암)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 동복
 ③3874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북석

1. 방지거 3회 월례회 : 6일 오후 2시반, 장당
2. 상지회 월례회 : 6일 공식미사 후, 임주택씨 백
3. 가정 방문 : 서노송동, 8일부터
4. 연도(위령 기도)는 간단한 식으로 합시다
5. 밀린 교무금 납부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4,640원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 아영
 보좌 신부 권웅희
 사도 회장 박종용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밤 8~10시
2. 성모회 월례회 : 11월부터 둘째주(다음주) 공식미사후
3. 혼배희실분은 30일전에 본당 신부님과 상담 바람
 - 축 결혼! 윤춘상군, 소금자(마리아)양, 6월 13일 유창원군, 이남옥(테레사)양, 6월 13일 박세웅군 이기옥(크리스티나)양 6월 14시반
 - 지난주 봉헌금 : 50,240원
 - 전교 회비 : 28,000원(교구에 전액 전달)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사도회 각부 78년도 계획 및 예산서 27일까지 제출 바람
2. 청년회 모임 : 오늘 오후 7시, 회비 200원
3. 신축헌금 신입 감사합니다 : 익명(50만), 신우라사 김병구(3만), 이철승(2만), 여산본당, 정모병원, 중앙성당 사도회(각1만), 월명동 본당, 박진량 신부, 성심여고, 이상용(각5천), 서학동 사도회, 조성호(각3천), 서학동 손숙자(2천), 광주 효성회(식탁 및 의자 일체) 총계 11,134,000원
 - ※ 신입한 봉헌금, 신축 헌금은 언제 납부 하실지?
 - 축 결혼! 박성준군, 최은미(수산나)양 6일 오전 11시 반 박종만(발도르메오)군, 정주순양, 6일 12시반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계설·감리·허가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화소식!!!



신원 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자> 3-1449

1. 파티마 성모상 가정방문 : 7일<월>임 헤레나, 8일<화>임 세지리아, 9일<수>홍 마리아, 10일<목>한시론, 11일<금>이기배, 12일<토>임 마리아, 13일<일>이정용
2. 사도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성우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양규철 형제 백
 - 지난주 봉헌금 : 39,325원, 정성껏 봉헌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2. 반회합에 전원 참석합니다 : 8일 <화>-1반, 9일<수>-2반, 10일<목>-3반, 11일<금>-4반
3. 신용조합 월례회 : 10일 저녁 7시반
 - 축 결혼! 조동호(노렌조)군, 박명숙양, 9일<수>오전 10시반
 - 지난주 봉헌금 : 37,340원, 감사합니다

(숲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가연습 : 주일미사후(중고생-<토>오후 7시미사후)
3. 반상회에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67,030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윤석
 사도 회장 김유식

1. 오늘 월례회 사도회 : (저녁 미사후), 성화회(10시미사후)
2. 유아세례 : 오늘 2시미사후
3. 예비자 교리 : 주일, 수요일, 금요일
4. 새성당 미사(앞으로 계속) 주일-오후 2시, 평일-(월)저녁 7시반
 - ※ 새성당 신축헌금 완납자 명단 : 전동-김환철신부, 유종현, 김용옥, 양윤모, 김순녀, 이춘래, 정인찬, 이금옥, 장덕기, 김선자, 홍철호, 최복금, 김비리사다, 이순례김인찬, 인자하신 정녀, 강재진, 백복주, 우덕순, 이종희, 문영자, 이영순, 최순덕, 이덕희, 이길만, 양한승, 임춘자, 강귀녀, 최유순, 이양자, 김영환, 이창근, 장수녀, 구경기, 천사의 집(계속)
 - 지난주봉헌금 : 124,990원

☆고교·대학 진학, 공무원 고시 전문 !!

이리 경 문 학 원

◎이리역 앞(서울 신탁은행4층) ☎ 5943

- 검정 고시반(78년4월, 8월대비 대입검정·고입검정)
- 고입 종합반
- 대입 종합반
- 4·5급 공무원반(행정직, 교정직, 농조, 검찰)